

학생독립운동 90주년 전국

학생대표 광주서 모인다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 개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 학생대표와 해외 학생 등 36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을 광주시 일원에서 11월 2일과 3일 개최한다.

이번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고 학생독립운동 전국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독립에서 평화로-평화, 교류로

열다'를 주제로 학생독립운동을 통해 전국 시도 학생대표들이 만남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11월 2일과 3일, 1박2일 행사로 진행되는 '전국 청년학생 문화예술 축전'은 전국 시도 학생대표 문화예술 단체들이 집결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 청소년독립페스티벌, 방송사 연계 문화예술 공연, 90주년 정부기념식 행사 참석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 시도 학생대표단은 당시 참여 학교인 광주제일고와 전남여고를 방문해 학생기념탑과 여학도기념비 참배 등 학교역사관을 들려볼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학생 20명 내외와 인솔교사 1~2명을 주천 받아 전국 학생대표 방문단 명단을 확정하고 향후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단위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주관한다.

조인호 기자

전남 학생들 '살아 숨쉬는 역사'에 빠지다

전남교육청 주최 '전남청소년 역사탐구대회' 성료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전남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균형 잡힌 역사의식 배양과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 역사교사모임이 주관하며 전남일보사,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제9회 전남 청소년 역사탐구대회가 21일 오전 전남대학교 교육융합관 사림홀에서 열렸다.

'임정 100주년·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전라도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의 실상과 해결 방안, 전남 지역 친일잔재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중·고교 70여 팀이 참가했

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근 반일, 극일 김정의 흐름을 반영하듯 지도 교사와 학생들의 참가 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심사 위원들이 본선작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선에 오른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 스스로 발굴하고 답사한 내용을 보고서나 UCC(영상) 형식으로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고, 발표준비에 크게 흥미를 끌어온 학생들은 등 대회의 공신력과 위상을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영암여고 1학년 최주하·김민우·김나영·최선화 학생팀에게 돌아

갔다. 이들은 '90여 년간 잊혀 있었던 영보촌 농민 항일운동'이라는 작품을 통해 소논문 수준의 보고서와 뛰어난 발표능력으로 심사 위원과 청중들을 감동케 했다.

심사위원장장을 맡은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는 "학생들의 수준이 해마다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이 행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더욱 깊어져 역사를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축사에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때 미래사회에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갖출 때 미래사회에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역사로 전남의 학생들에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역사캠프를 '3.1운동 100주년, 민주와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의 날' 개최



완도영재교육원은 19일 초, 중 영재교육원 학생 및 학부모, 지도 교사 등이 참관한 2019 완도영재 교육원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번 영재교육원의 날은 전담교사의 수업공개와 학생 스스로 탐구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한 결과인 창의적 산출물 발표, 가족과 함께 하는 영재가족 창의력 올림픽 대

회로 구성하였다.

창의적 산출물 발표는 총 10팀으로 팀별 탐구했던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기록하였다.

이번 영재교육원의 날은 전담교사의 수업공개와 학생 스스로 탐구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한 결과인 창의적 산출물 발표, 가족과 함께 하는 영재가족 창의력 올림픽 대

배우는 발표회가 됐다.

이어서 진행된 가족 창의력 올림픽 대회는 '종이도 틀릴 수 있어!'라는 미션에 따라 가족별 창의적인 종이 구조물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영재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참관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열심히 준비하고 탐구했던 산출물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가족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가족 단합의 시간도 되었다. 또한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등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명식 원장은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영재교육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면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통해 영재교육원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청-교육부, 미래교육위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이 교육부와 함께 오는 24일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에서 미래교육위원회 현장 간담회 '미래수다-미래: 행복한 도전의 수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올 초 2월에 구성된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함께 꿈과 도전,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곤충관련 산업 고교생 창업가 공회준 칠명바이오 대표와 여행 작가 이자 화가인 김물길 멘토가 강연자로 참여해 학창시절의 꿈과 고민, 그리고 다양한 도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래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위원회 현장 간담회

'미래수다(秀多)'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원격 영상을 통해 강연을 시청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미라 원장은 "학생들의 삶에 서도 전의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이번 미래수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함평영화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함평영화학교가 지난 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경험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전통 음식(반미 샌드위치, 그레이엄 블루, 칼라만시 모하토)을 만들어보고 전통놀이(주온주온)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 알고

많은 관심과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승주 함평영화학교 교장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넓은 시야와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 어깨를 견주어 사이좋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